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과 제노포비아*

임상래(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I. 들어가는 말
- II. 코스타리카의 국제 이민 현황
- III.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차이와 차별
- IV. 니코포피아(Nico-phobia)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는 이주의 역사였고 지금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산과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촌 인구 35명 중 한 명이 이주자이니 그 숫자는 1억 7,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 총 인구와 맞먹는 숫자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이출민, 이입민, 통과이민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이민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UNESCO 2003, 2). 인권은 원래 인류보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국경을 초월하여 만인에 해당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주자 인권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주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주자는 노동자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Sang-Rae L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panish, srlim@pufs.ac.kr), "Nicaraguan Immigrants in Costa Rica: Human Rights & Xenophobia".

이며 인간이기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정착하는 초기부터 위협받기 십상이다. 이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삶의 조건은 낮은 임금 등으로 열악하다. 반 실업이나 실업상태에서 불법 노동계약을 하였을 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은 더욱 위협해진다. 불법이주노동자는 자체로 착취의 대상이다. 모든 노동조건은 고용주의 처분에 의지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Los Derechos de los Trabajadores Migratorios). 또 이주자들은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제한되어도 된다는 잘못된(그러나 일반화된) 생각에 맞서야 한다. 다르다는 이유로 때론 인종차별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자들의 인권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니카라과 이주자의 인권을 살펴보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수민국이며 이 나라의 외국인 중 다수는 니카라과 출신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코스타리카 사회에서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니카라과인에 대한 내국인의 반감, 혐오, 기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주자 인권에 대

1) 유네스코의 이주자 인권 협약의 중요 내용을 보면:

- 비인간적이고 신체-정신적인 남용으로부터 노동과 생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 사상, 표현, 종교의 권리
 -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
 - 법 앞에 평등할 권리(법정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등)
 - 교육-사회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
 - 노조에 참여할 권리
 - 본국과의 관계에 관한 권리(방문할 권리, 모국과 문화적 연결을 유지할 권리, 본국 정치에 참여할 권리, 송금할 권리 등)
 - 정규이주자는 비정규이주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나 비정규이주자에게도 기본적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 이주자에 대한 불법적 활동을 근절해야함(거짓 이주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밀입국 브로커, 불법이주자 고용주를 처벌해야 함)
- UNESCO(2003, 2-3.) 참조.

한 코스타리카 사회의 인식과 그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코스타리카의 국제 이민 현황

II.1. 코스타리카: 중미 이민의 중심국

우리가 흔히 하나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중미는 실은 하나가 아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아메리카는 다양하고 복수적인 모습을 가진 지역이다.

<표 1> 2000년 중미 경제·사회지표

| 구 분 | 벨리스 |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파나마 | 소계 (*평균) |
|---------------------------|-------|---------------|--------|---------|---------|---------|--------|----------|
| 인구(천명) | 226 | 4.023 | 6.276 | 11.385 | 6.485 | 5.071 | 2.856 | 36.332 |
| 면적(km ²) | 22923 | 49.960 | 19.892 | 109.063 | 112.302 | 126.460 | 72.213 | 512.813 |
| 인구밀도 (명/km ²) | 9.9 | 80.5 | 316 | 104 | 57.7 | 40.1 | 39.5 | 71* |
| 국내총생산 (백만 달러) | 558 | 14.257 | 10.689 | 17.163 | 4.366 | 2.327 | 9.178 | 58.538 |
| 성장률 (1990-1999) | 3.8 | 5.1 | 4.5 | 4.2 | 3 | 3.3 | 4.7 | 4.1* |
| 일인당생산 (달러) | 2.470 | 3.544 | 1.703 | 1.507 | 673 | 459 | 3.214 | 1.612 |
| 빈곤인구(%) | - | 20 | 50 | 61 | 80 | 70 | 30 | 56* |
| 도시인구(%) | 48 | 59 | 60 | 40 | 53 | 56 | 56 | 51* |

출처: CEPAL, Anuario Estadístico, 2001, 2002, Chile.

우선 중미의 인구규모는 제각각이다. 과테말라에서 파나마까지 7개국 인구는 총 3.600만 명인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총인구의 7%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과테말라 31%, 온두라스 18%, 엘살바도르

17%, 니카라과 14%, 코스타리카 11%, 파나마 8%, 벨리스는 1% 순이다. 2004년 현재 코스타리카 인구는 약 42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인구밀도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중미 국가들 중 코스타리카는 비교적 도시인구 비율이 높으며 총생산은 과테말라 다음으로 크다. 코스타리카의 일인당 생산은 3,500 달러 이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빈곤층 역시 중미에서 가장 적다. 또 1990년대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가장 높은 연 평균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스위스처럼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이다. 1949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의해 군장설이 금지되어 있어 경찰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왔고 동시에 미국의 직-간접의 보호를 받아왔다.

코스타리카는 정치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어 다른 중미국가들과 비교할 때 예외적이고 특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스위스’로 불려왔다.

정치-경제적 안정과 성장으로 인해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역내이주의 중심국 중 하나이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미주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이주자(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포함)를 받아들이는 나라이며 세계에서는 제 9 위의 수민국이다. 전체 인구 430만 명 중 외국인은 약 42만 명 이상이다(스토커 2004, 21).

기실 코스타리카는 이전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인으로 망명 또는 난민의 자격으로 코스타리카에 입국하였다. 1970년대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지식인들이 군부독재를 피해 코스타리카로 망명하였고 1980-90년대 중미각국의 내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코스타리카로 이주하였다. 특히 산

디니스타 정부와 콘트라스 반군 간에 1979년부터 11년 동안 계속되었던 내전 동안 수많은 니카라과 사람들이 코스타리카로 피난하였다.

<표 2> 코스타리카 합법 체류 외국인 현황(2004)

| 국가 | 일시 체류 | 영주 | 계 |
|-------|--------|---------|---------|
| 아르헨티나 | 407 | 739 | 1,146 |
| 콜롬비아 | 877 | 6,702 | 8,579 |
| 쿠바 | 75 | 5,760 | 5,835 |
| 에콰도르 | 140 | 579 | 719 |
| 엘살바도르 | 534 | 6,302 | 6,836 |
| 미국 | 1,576 | 6,400 | 7,976 |
| 과테말라 | 296 | 1,072 | 1,368 |
| 온두라스 | 236 | 1,598 | 1,834 |
| 니카라과 | 3,076 | 212,730 | 215,806 |
| 파나마 | 249 | 4,570 | 4,819 |
| 페루 | 269 | 2,407 | 2,676 |
| 베네수엘라 | 385 | 665 | 1,050 |
| 소계 | 9,120 | 249,524 | 258,644 |
| 기타 | 3,655 | 19,418 | 23,073 |
| 총계 | 12,775 | 268,942 | 281,717 |

출처: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2005), Costa Rica y sus cifras migratorias 2004.

정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코스타리카에는 약 42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 이중 정식 체류자는 30만 정도이며 나머지는 미등록(불법)이주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에서처럼 합법 체류자중 니카라과 출신이 약 2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미국,

엘살바도르, 쿠바, 파나마, 페루의 순이다. 중남미와 미국 출신이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한다. 2004년 현재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2.7%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중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해외 이주는 적은 편이다. 일자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정치적 안정 등으로 전통적으로 코스타리카의 이출민은 많지 않으나 나가는 이민자는 여자가 더 많고 이들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로 미국으로 이주한다. 현재 코스타리카의 총 이민자는 미국 77,000 명, 파나마 4,600 명, 멕시코 2,400 명 등 총 85,000 명 정도로 추산된다.(Informes nacionales 2002, 71; Uso de los datos 2002, 31)

II.2. 니카라과 이주자의 규모와 현황

1990년대 니카라과 내전이 종결되자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니카라과 난민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이주의 다면적 성격을 간과한 순진한 생각이었다. 비록 코스타리카로 온 니카라과 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이 이들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적 동인은 더욱 중요했다. 1993년 이후 니카라과의 실업문제가 가중되고 이전 산디니스타 정부에 의해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어 오던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서 이민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코스타리카 경제의 순항도 니카라과 이민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한 몫 하였다(Rosero 2004, 75). 최근에는 국제 커피 가격의 하락으로 커피 농업이 폐쇄화되면서 더 많은 니카라과인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만이 전부는 아니다. 양국의 언어와 문화는 매우 유사하여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니카라과인들은 쉽게 이주를 결심할 수 있다. 또 양국 국경에는 판아메리칸 하이웨이와 국도가 잘 연결되어 있고 교통편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니카라과 이민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임수진 2005, 119). 또 여기에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간의 이민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이민 정보는 물론이고 숙식과 같은 기초적 생활 편의도 제공하며 일자리까지 알선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브로커와 같은 하부 구조도 포함된다. 따라서 니카라과인들이 이주를 결심하는데 본국과 이민국간의 이민자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22만 명이란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우선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이민자가 많고 게다가 불법이주자에 대한 사면 조치가 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통계만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또 인구센서스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니카라과 이주자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불법이주자를 포함하여 최소 40만 최대 70만의 니카라과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성비는 균등하나 연령분포에서는 내국인인 코스타리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젊은 인구(20-29세)가 많고 유아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 이들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81개 칸톤 중에(코스타리카는 8개의 provincia 밑에 81개의 canton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 30개가 전국 평균 이상의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살고 있고 이중 로스 칠레스(Los Chiles), 산 카를로스(San Carlos), 마띠나(Matina), 우빨라(Upala), 사라삐끼(Sarapiquí), 라 크루스(La Cruz) 칸톤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인 산 호세(San Jose)와 알라후엘리따(Alajuelita)에도 니카라과 이주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quero 2004, 64-65).

이주의 동인으로는 가난(70%)과 실업(53%)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국 농촌의 임금 격차(코스타리카 201 달러, 니카라과 59 달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니카라과 농촌의 빈곤과 만성적 실업은 코스타리카로의 이주를 고착화시켰고 이것이 현재 코스타리카의 상업작물 농장의 순환적 노동력 공급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Informes nacionales 2002, 70-71) 이 시스템은 특히 양국 국경지역에서 인구를 이동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종사하는 일을 보면 표에서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농업, 건축 노동, 경비, 점원 등이 많으며 여성은 가내 노동 등 단순 서비스에 많이 종사한다. 따라서 니카라과 이주자들은 주로 단순-비숙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할 때 니카라과 이주자들은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약 30% 정도가 농사일에 종사하고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니카라과 이주자와 내국인의 10대 직업

| 직업 |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 직업 |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
|-----------|------------|------|-------------|------------|------|
| | 남자 | | | 여자 | |
| 농장노동자 | 28.8 | 14.5 | 가정부 | 48.4 | 14.9 |
| 미장공/목수 | 8.7 | 3.7 | 식음료서비스 | 10.3 | 5.7 |
| 광산/건축업 | 8.3 | 2.3 | 판매원/창고 | 7.1 | 9.9 |
| 경비/경호 | 5.9 | 4.6 | 제조업노동자 | 4.2 | 2.6 |
| 행상/점원 | 3.4 | 5.6 | 농장노동자 | 3.5 | 1.8 |
| 농업 | 3.2 | 6.0 | 섬유/가죽 | 2.9 | 4.8 |
| 제조업노동자 | 2.7 | 2.0 | 행상 | 2.3 | 1.7 |
| 용접/주조/선반공 | 2.3 | 1.5 | 사람-동물 간(호)병 | 2.1 | 1.9 |
| 자동차 운전 | 2.0 | 7.5 | 외환/송금업 | 2.0 | 3.1 |
| 정원사/집사/수위 | 2.0 | 1.6 | 기타 서비스 | 1.9 | 0.7 |
| 소계 | 67.3 | 49.3 | 소계 | 84.7 | 47.1 |

출처: Barquero 2004, 70.

III.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차이와 차별

III.1. 비자와 입국

코스타리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른 각각의 규정

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주를 위한 이민자에게는 출신국가별로 복잡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며 단기 체류의 경우, 코스타리카 정부는 니카라과를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함께 방문 비자 취득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III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는 I 국가군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며 나머지 중남미국가들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II 국가군으로 분류된다.(DIRECTRICES GENERALES)

<표 4> 니카라과국민 입국 거부 및 추방 현황(2002-2004)

| 구분 | 2002 | | 2003 | | 2004 | |
|------|--------|-------|--------|-------|--------|-------|
| | 입국거부 | 추방 | 입국거부 | 추방 | 입국거부 | 추방 |
| 니카라과 | 34,493 | 4,012 | 43,720 | 2,454 | 45,206 | 660 |
| 전체 | 38,679 | 4,610 | 45,444 | 2,811 | 46,551 | 1,031 |

출처: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2005), Costa Rica y sus cifras migratorias 2004.

또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재정 보증이 확실하지 않거나, 코스타리카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추방되었거나, 본국으로 재귀국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표에서처럼 2003년 코스타리카의 입국 거부는 총 45,400 건이었는데 이중 니카라과인에 대한 건수는 43,700 이었고 작년에는 총 46,500 명이 입국이 거부되었는데 이중 45,200건이 니카라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니카라과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합법적인 입국이 여의치 않으면 그들은 밀입국을 하게 된다.²⁾ 경찰이 국경을 지키고 있지만 불법월경자들은 항구, 공항, 국경검문소

2)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커피 농장에 일시 노동자로 가는 니카라과인들은 50달러나 되나 여권과 비자 발급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입국을 하게 된다.(입수진 2005, 149)

가 아닌 그들만이 알고 있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이른바 ‘장님 통로’(puntos ciegos)를 통해 안전하게 코스타리카로 입국한다.³⁾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코스타리카에서 추방(출국)된 외국인은 총 2,811명이었는데 이중 니카라과인은 2,454 명이었고 작년 한해에는 총 1,031 명 중 660 명이 니카라과출신이었다. 비록 추방자 숫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최근 코스타리카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대신 국경에서의 경계-검거 작전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코스타리카로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로 출국당하는 니카라과 이주자는 전체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니카라과인들은 코스타리카에 입국하기 위해 다른 중남미 국가 국민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III.2. 차별/차이의 사회적 구조

차이의 사전적 의미는 ‘구별되는 다른 점’이다. 즉 대상을 구분할 때 어떤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차별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는 무의지적이며 차별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다자간의 단순 비교의 관점이라면 차별은 일방적이고 상하적인 관계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권의 범주에서 얘기한다면 ‘차이’만으로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내국인이 차이에 근거해서 이주자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차별이 동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자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이곳 중 한곳이 서부 국경의 라 크루스(La Cruz)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판아메리칸 고속도로가 통과하지만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수 km 우회하여 밀입국한다. 이 지역에서는 이들에게 약 7-10달러 정도를 받고 숙소를 제공해 주는 집도 있다 (Tráfico de Migrantes).

원주민(내국인)과 이주자(외국인)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이 차이가 차별로 현재화된다는 것은(그것의 정오를 떠나)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니카라과 이주자들은 코스타리카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이/차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들은 코스타리카 사회 내에서 노동, 교육, 빈곤, 주거, 거래, 입국 등 다양한 층위와 범주에서 나타난다.

먼저 내국인과 외국인간 노동단위당 수입을 비교할 수 있다. 월 평균 수입을 볼 때, 숙련직종에서는 코스타리카인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나 건설이나 농업과 같은 단순직종에서는 니카라과인들이 더 많이 받은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일 직종의 시간당 임금을 보면 코스타리카인들이 더 많이 받아 임금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을 보면 니카라과 남성 113 콜론(여성 98 콜론)인 반면 코스타리카인은 158 콜론(여성 137 콜론)으로 임금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카라과인들의 노동시간은 숙련직종은 53시간, 단순직종은 52시간인 반면 코스타리카인은 각 49시간과 43시간으로 더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 수혜면에서는 니카라과 이주자의 39.8%가 어떤 의료복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질병이나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entro Nicaragüense 2004, 157; Maguid 1999, 33).

극빈층과 빈곤층을 합한 비율은 24 % 대 26 %로 니카라과 이민자가 높으며 니카라과 이주민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우빨라 지역의 경우, 니카라과 가구의 51%가 상수도가 없지만 코스타리카 가정의 경우는 33% 이다(Maguid 1999, 32).

코스타리카인의 문자해득율은 95%이고 니카라과이주자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97%인 반면 니카라과 이주자의 문자해득율은 88%로 가장 낮다. 평균 수학 기간도 코스타리카인들은 약 7.5년이고 다른 외국인들은 6.8년 정도이지만 니카라과 이주자의 평균 학력은 니카라과 평균보다는 높긴 하지만 5.6년 정도에 머물고 있다(Barquero 2004, 66-67).

코스타리카인은 약 17%가 사회복지에 미가입되어 있지만 니카라과인은 약 40%이며 다른 외국인들은 29%이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인들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Barquero 2004, 68).

또 다른 연구 역시 차이와 차별을 보여준다. 니카라과 이주자 주거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니카라과 이주자의 7.1%가 움막과 같은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34%가 불량한 주택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니카라과인의 35.5%가 안전, 외관, 상하수도, 전기 등 자신의 주택이 불량하다고 답한 반면 12%의 코스타리카인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Centro Nicaragüense 2004, 156).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니카라과 이주자가 모여 사는 산호세 외곽 지역에서 니카라과인의 37%만이 적절한 주거 시설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임금이 낮아 주택을 장만할 수 없고 또 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받는데 여러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El País, 2005/1/15).

국경에서 차별은 더 빈번하게 목격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간의 국경에서도 입국자-국경경비대-이민브로커간의 삼각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 착취, 체포, 뇌물, 추방 등의 일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또 국경에서의 '사소한' 떨시와 냉대 정도는 참아야 한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또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하는 니카라과인들은 국경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뇌물을 요구 받기도 하고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이건 마냥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때론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추방시키겠다는 위협도 참아내야 한다(El Nuevo Diario, 2001/4/11).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국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빈번한 문제는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코스타리카 경찰의 부당한

4) 국경 뉴스에는 traficantes de personas(인신거래), contratistas, coyotes, salvatruchos, salvatrucha(밀입국알선 브로커), migra(국경 수비대)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국경의 검은 주인공들이며 특히 중미의 이민경찰은 불법이주자 인권침해로 그 악명이 높다.

행위이다. 산 호세 외곽의 라 까르삐오(La Carpio) 지구는 1만여 명이 니카라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2004년 1월 30일 약 300명의 코스타리카 경찰들이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검속을 벌여 600여명을 체포하였는데 이중 대다수는 니카라과 이주자였다. 범죄 예방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목표로 실시된 이 작전은 스페인어로 ‘빗자루’를 뜻하는 에스꼬바(Escoba) 작전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름부터 인종차별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고 또 외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를 금지한 인권선언을 위배한 것으로 양국의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다(Fonseca 2004, 31).

IV. 니코포피아(Nico-phobia)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이다. 따라서 인권 역시 법적 장치에 의해 내용이 정해지고 보호받게 된다. 즉 인권은 법과 제도에 의해 구현된다.

이주자의 인권 역시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이주자의 인권은 내국인이 그들에게 갖는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기도 한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감정, 인식, 태도는 초법적인 것이어서 법이나 제도의 강제력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외국인 혐오증은 분명 이민자인권의 보장과 침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혐오(기피)증(xenophobia)은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보호 의식이기도 하며 열등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방인에 대한 기피증이나 두려움은 인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해 갖는

반감, 즉 니코포비아는 코스타리카 사회의 인권 인식과 내국인-이주자 관계의 핵심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니코포비아는 ‘反니카라과’와 ‘反이민’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니코포비아의 동인으로는 먼저 코스타리카의 유럽지향적-백인중심주의적 전통을 언급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백인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수도 산호세는 중앙아메리카 도시 중 가장 ‘유럽이 되고 싶었던 도시’(una ciudad que quiere ser Europa)였다. 따라서 니카라과 등의 주변 혼혈국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일 뿐이다. 코스타리카는 백인중심적 국가인 동시에 이전부터 이주자들에게 비교적 개방적인 친이민적 국가였기 때문이다.⁵⁾ 오히려 니코포비아는 反이민의 성격을 더 갖는다. 매스컴과 여론에 의해 보도되고 제기되는 문제는 니카라과 불법 이주자들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범죄와 빈곤을 확산시키고, 사회제도와 서비스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니카라과 이민자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니코포비아는 니카라과 이주자의 숫적 증가에 대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갖는 불만인 동시에 경계이다. 이런 니코포비아를 가장 강건하게 받쳐 주는 것은 바로 ‘백만’의 신화이다. 빈곤, 폭력, 실업, 범죄

5) 80년대 코스타리카는 주변국으로부터 난민이 유입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 현재는 이민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스타리카의 이민-외국인 법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trabajador migrante)는 체제와 (일시)노동이 가능하다. 1996-1998년 동안 코스타리카 정부는 노동허가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멜론, 오렌지, 커피, 바나나 등의 농작물 수확과 건설 현장에서 일 할 니카라과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력을 필요한 분야로 유인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또 1998년 12월 9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11월 9일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입국자들은 자신의 입국조건을 합법화하여 강제추방을 피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그 해 11월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중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허리케인 미치로 인한 국제적 재건노력에 동참한다는 연대감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Maguid 1999, 24, 67) 코스타리카 정부의 이 조치는 주변국가가 피해를(이전에는 내란으로, 이번에는 자연재해로) 입었을 경우 그 나라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개방정책이 중미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더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코스타리카 정부는 사면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로서 코스타리카는 국제사회로부터 이주자 인권의 보장과 중미 국가 간 연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등 코스타리카의 모든 악은 백만이나 되는 니카라과 이민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현재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니카라과인은 총 216,000 명 이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하더라도 70 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 신화가 계속 얘기되는 것은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산호세의 경우, 라 까르삐오(la Carpio), 로스 기도스(los Guidos), 엘 빠르게 델라 메르센(el Parque de la Merced) 등에 모여 살고 가사, 건축, 개인경비 등 특정 분야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몰이해 또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Rosero 2004, 77)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니카라과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다. 코스타리카는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의 니카라과 이민에 이미 익숙해 있었으나 갑자기 많은 이민이 몰려오자 이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니코포비아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인터뷰).

또 다른 신화는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반이민주주의의 고전이다. 코스타리카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자국인이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더 적은 임금을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농업(3D 직종을 포함하여)이 이주 노동자들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이주자들이 내국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근 코스타리카에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서 코스타리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들은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고 생계농은 농산물회사의 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일용 노동자는 건설 회사에 취직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니카라과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니카라과 노동자를 45 만 명으로 가정하면 이들의 연간 총생산은 약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El Nuevo Diario, 2002/12/15). 따라서 니카라과 이주자들은 실업의

증감과도 거의 무관하다. “단지 티코는 니카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다”(Los ticos necesitan a los nicas).⁶⁾ 이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오히려 이들은 더 젊고, 생활에서 있어서 더 역동적이며 의지적이기 때문에 보건이나 복지서비스를 내국인보다 덜 소비한다(Rosero 2004, 78).

니코포비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허구인가 아니면 실상인가를 따지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인식의 범주에서만 작용되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태도와 생각을 아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 문제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또 이 문제가 코스타리카인에게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상의 당연지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 연구는(Vargas 2004, 149-154) 외국인 혐오라는 비민주적인 일이 코스타리카에서 향후(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⁷⁾ 이 연구는 코스타리카인 1,500명을 대상으로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문 조사하였는데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미등록 니카라과인을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즉시 출국시켜야 한다(51%), 조사한 후 전과가 없다면 체재하게 한다(42%),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7%)로 결과가 나왔다.

2. 니카라과 이주 노동자들이 코스타리카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

6) 티코(ticos)는 코스타리카 사람의 애칭이며 니카(nicas)는 니카라과 사람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7) 어쩌면 니카라과 이주자 문제는 이미 코스타리카 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 간 대립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 문제는 각 후보 진영의 가장 치열한 쟁점중의 하나였다. 이민경찰을 통해 니카라과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 양국 간 국경지역을 개발하는 방법, 이민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는 방법, 미등록이주자는 송환시키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고 이를 둘러싼 격론이 전개되기도 했다(*La Prensa*, 2001/5/2).

는가? 에 대해서는 33% 만이 코스타리카인들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답하였고 67% 는 코스타리카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3. 니카라과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과 보수에 대해서는, 과분한 혜택을 받는다(28%), 한 만큼 받는다(23%), 적은 혜택을 받는다(49%)고 답하였다.

4. 니카라과 인들의 관습과 문화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는 39% 가 코스타리카보다 열등하다고 답하였고, 50% 는 다를 뿐이라고 하였고 11% 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답하였다.

다른 항목들을 포함하여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스타리카인의 니카라과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부정적 19.1%, 약간 부정적 20.3%, 중립적 28.9%, 약간 긍정적 12.5%, 매우 긍정적 1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39.4% 대 31.7%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중립적 의견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60% 정도의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니카라과 이민자에 대해 우호 내지는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구분되고 양분되는 것은 이주자 공동체에 대한 그 사회의 반응의 단면이기도 하다. 코스타리카에서 이를 니코포비아의 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와는 무관한 자연스런 통합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산호세 주변 6개 마을에는 약 28,000 명의 니카라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그간 니카라과 이주자 다수인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전체 주민의 단지 36% 만이 니카라과 출신이며 전체 가구의 18%만이 니카라과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I País, 2005/1/15). 이는 출생 또는 결혼을 통해 코스타리카 국적을 얻는 니카라과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이들이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조사가 전국의 니카라과 이주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니

카라과 이민자들이 특정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나 이곳에는 코스타리칸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게다가 내국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니코포비아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분리나 격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인터뷰).

코스타리카에서 니코포비아를 부정하는 이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이 허구는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현실이다. 반 외국인 정서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지역이 겪는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인터뷰). 코스타리카는 역사적으로 주변국가로부터 많은 난민과 망명 등을 받아들였고 이 중에서 니카라과 이민은 항상 가장 많았고 가장 중요했다. 이처럼 양국 간 이민의 역사는 이미 오래 동안의 일이기에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간에는 대립과 반감뿐만이 아니라 동화와 지지도 함께 있어왔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의 니코포비아가 비록 최근 더 확산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양국 관계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런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의 니코포비아가 비록 상당부분 허구와 과장에 힘입은 바 있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마치 멕시코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리오 그란데를 건너 듯 니카라과 사람들도 코스타리칸 드림을 꿈꾸며 국경을 넘는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움켜쥐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이 생계형 모험자들이 중미의 스위스에 영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이들의 인권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위협받고 침해받는다. 또 외국인으로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니코포비아는 비록 허구적이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이다.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또 다른 현실은 이들에게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매우] 생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히스패닉과 비교한다면,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간의 문화와 종교는 동일하거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 또 억양이나 어휘사용이 조금 다른 뿐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주민과 이주자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에 문제는 거의 없다. 외견상 니카와 티코간의 구분도 쉽지 않다. 니카라과 사람 중에는 메스티소가 더 많긴 하지만 모든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구분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니카라과 이주자들은 코스타리카 사회에서 니카라과적인⁸⁾ 것을 保持하지 않고 코스타리카 사회로 편입된다.

아울러 이주자의 인권은 내국인이 그들에게 갖는 반감과 혐오감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포비아는 법·제도적 메커니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운동, 연대로서 조망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운동들은 이주자 인권 개선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조직된 '메리엔다 이 사파토스'(merienda y zapatos 간식과 신발)단체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니카라과 이주자를 지원하는 Ngo로서 코스타리카인과 니카라과 이주자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2만 명의 니카라과 어린이들 중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geocities.com/meriendayzapatos/index.html>). 또 이 단체는 코스타리카내의 니코포비아가 언론의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왜곡 보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보세스 델 라 까르삐오'(Voces de la Carpio 라 까르삐오의 소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OIM(국제이주기구)의 지원을 받아 니카라과 이주자가 많이 모여 사는 라 까르삐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 주민과

8) Juan Carlos Vargas 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의 치카노 문화와 대비하여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일련의 상호작용(역사까지 포함하여)으로 치카노 이민 문화가 성립되었지만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주자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위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가 중첩되는 티코-니카라과 문화가 생성되기 힘들거나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인터뷰).

여론에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도서 기증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http://www.geocities.com/meriendayzapatos/voce.html>). 이와 같은 문화 운동들은 정부의 정책적 차원의 시도들과 함께 코스타리카인들의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토커(2004, 133)가 얘기한 것처럼 제노포비아를 포함하여 이주의 해악을 얘기하는 건 자국중심적 발상에서 나온다. 왜냐면 인류전체의 행복과 복지 측면에서 그리고 지구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는 물과 같다. 물이 자연계의 원동력인 것처럼 이주는 인류 역사의 자양분이다. 따라서 이주자를 인위적으로 잇거나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하며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은 이주자 인권이 적극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이주자에 대한 차별의 양상과 구조, 이민 정책과 법,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연대와 이해의 문화운동이 수민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이주노동자 40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sta Rica cuenta con la larga tradición de estabilidad política y una economía creciente y estable, por lo que se ha llamado 'el Suizo Centroamericano'. Entonces esa nación ha sido uno de los pocos países latinoamericanos, a donde llegan los inmigrantes de los países vecinos y en los últimos años la inmigración nicaragüense se considera uno de los fenómenos sociales más importantes en Costa Rica. Si no es cierto, por lo menos así lo percibe la opinión pública local. Muchos acontecimientos negativos en el país, especialmente como el crimen, la

violencia doméstica o el desempleo tienden a atribuirse a la inmigración de Nicaragua. Es decir, el imaginario colectivo de los costarricenses vincula todo el mal que antes no apareció en la sociedad costarricense a los inmigrantes de Nicaragua. De igual manera, las noticias de prensa y declaraciones de los antiinmigrantes mencionan cifras exageradas, como la de que el número de inmigrantes es de un millón. Pero según las estadísticas disponibles tanto oficiales como académicas, los nicaragüenses ni siquiera llegan a un millón y si es mucho, a medio millón.

Esta percepción exagerada o mal intencionada es uno de los caracteres de la xenofobia o antiextranjerismo. El irrespecto de los derechos civiles de los inmigrantes puede originarse en actitudes o valores de los nacionales, por lo que es importante difundir y establecer el clima de aceptación o tolerancia hacia los extranjeros inmigrados, para lo cual se necesita, entre muchos, tomar las medidas jurídicas con el fin de proteger a los inmigrantes extranjeros y desarrollar un movimiento cultural de alianza, cooperación y co-entendimiento en el que participan tanto los costarricenses como los nicaragüenses.

Key Words: Nicaraguan Immigrants, Human Rights, Xenophobia, Migration /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 이민, 제노포피아, 외국인혐오주의.

논문투고일자: 2005. 07. 13

심사완료일자: 2005. 07. 25

게재확정일자: 2005. 08. 20

참고문헌

- 임수진(2005), 『코스타리카 커피 경제의 시-공간적 전개와 지역적 차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피터 스토킨(2004), 『국제이주』(김보영 역), 이소출판사.
- Barquero, Jorge A. & Juan C. Vargas(2004),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Costa Rica : Estado Actual y Consecuencias”, in Grettel López & Reinaldo Herrera(ed), *Evolución demográfica de Costa Rica y su impacto en los sistemas de salud y pensiones*, Costa Rica: Academia de Centroamérica, pp. 64-68, 70.
- Centro Nicaragüense de Derechos Humanos(2004. 2), *Derechos Humanos en Nicaragua Informe Anual 2003*, Managua, pp. 156-157.
-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nuario Estadístico, 2001, 2002*, Chile.
- CEPAL/OIM(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BID(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02), *Informes nacionales sobre migración internacional en países de Centroamérica*, Santiago de Chile, pp. 70-71.
- CEPAL/OIM/BID(2002), *Uso de los datos censales par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Centroamérica*, Santiago de Chile, p. 31.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2005), *Costa Rica y sus cifras migratorias 2004*.
- Fonseca, Karina(2004), “La Carpio: notas rojas y voces claras”, *Envío*, Año 23, No. 273), Nicaragua: Universidad Centroamericana de Managua, p. 31.
- Maguid, Alicia M.(1999), *Gente en Movimiento: Dinámica y Característica de las migraciones internacionales en Centroamérica*, Costa Rica: OIM, pp. 24, 32-33, 67.
- 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os Derechos de*

los Trabajadores Migratorios.

- Rosero, Luis(2004), “Retos de la inmigración nicaragüense a Costa Rica”, *Actualidad Económica*, No. 307, Costa Rica. pp. 75, 77-78.
- UNESCO(2003), *La Conven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inmigrantes*, pp. 2-3.
- Vargas, Jorge et. al.,(2004) *La cultura política de la democracia en Costa Rica 2004*, Costa Rica: Centro Centroamericano de Población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pp. 149-154.
- Directrices Generales de Visas de Ingreso para No Residentes(코스타리카 입국비자 규정 지침, <http://www.migracion.go.cr/paginas/principal.html>, 2004. 11)
- Merienda y zapatos(간식과 신발), <http://www.geocities.com/meriendayzapatos/index.html>, 2005. 5)
- Tráfico de Migrantes Estudio de caso: Costa Rica*(2000), 코스타리카 이민외국인국 & OIM(<http://www.crmsv.org/investigacion/EstudioCR.htm>, 2005.1)
- Voces de la Carpio(라 까르삐오의 소리), <http://www.geocities.com/meriendayzapatos/voces.html>, 2005. 5)
- El Nuevo Diario*(니카라과 중앙 일간지) 2001/4/11, 2002/12/15
- El País*(코스타리카 중앙 일간지), “Nicagüenses son menos en precarios”. 2005/1/15.
- La Prensa*(니카라과 중앙 일간지), 2001/5/2,
- 후안 까를로스 바르가스 교수(Juan Carlos Vargas Aguilar) 인터뷰, 코스타리카대학교 중미인구연구소(Universidad de Costa Rica, Centro Centroamericano de Población), 2005. 1. 17. 13:00-6:00.